

肺와 皮膚의 關係에 對한 文獻의 考察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

李漢求 · 鄭昇起 · 李珩九

I. 緒 論

韓醫學에서 言及되는 皮膚는 肺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內經 素門 陰陽應象 大論에서는 “肺生皮毛”라 하여 肺가 皮毛를 生養한다 하며, 六節藏象論에서 “肺者氣之本 白鬼之處也 其華在毛 其充皮”라 하여 皮膚에 肺의 充實度가 나타난다 하고, 宣明 五氣篇에서는 “肺主皮”라 해서 직접적으로 肺가 皮膚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方外科에서 나타나는 諸皮膚疾患은 六淫 · 七情 · 五臟 等の 原因과 證狀에 對하여는 상세히 記述되어 있으나 肺와 密接한 關係는 소홀한 感이 있어 文獻을 考察하였다.

이에 論者는 肺와 皮膚의 關係를 상세히 밝혀 보고져 한다.

II. 本 論

[內 經]

(痿 論)

• 肺主身之皮毛 心主身之血脉 肝主身之筋膜 脾主身之肌肉 腎主身之骨髓

(陰陽應象大論)

•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生腎

註) 肺之精氣 生養皮毛

(宣明五氣篇)

• 心主脉 肺主皮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

註) 肺主皮 包裹筋肉 間拒諸邪也

(欬 論)

• 皮毛者 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以從其合也

(六節藏象論)

• 肺者氣之本 魄之處 其華在毛 其充皮
註) 肺藏氣 其神魄 其養皮毛

(五藏生成論)

• 肺之合皮也 其榮毛也

註) 金氣堅定皮象 亦然 肺藏應金故合也

[難 經]

(十四難)

• 損脉之爲病奈何 然一損損於皮毛 皮聚毛落…

[劉河間傷寒三六書]

(虛損論)

• 虛損之疾…自上而損者 一損損于肺 皮聚而毛落…感此病者 皆損之病也

[古今醫統]

• 自上而損者 一損損於肺 皮聚而毛落

[醫學入門]

• 外因感寒久則損陽 自上而下 一損於肺 則 皮聚毛落

• 肺勞 預事而憂則 氣乏 心腹冷 胸背痛 極則毛焦津枯 咳嗽 開熱

[萬病回春]

(補 益)

• 虛損之疾 寒熱因虛而 感也 感寒則損陽 陽虛則陰盛 凡損自上而下 一損損於肺 皮聚毛落

[六科準繩]

(虛 勞)

• 自上而損者 一損於肺 故皮聚毛落… 治肺損 皮聚而毛落 宜益其氣 四君子湯

(皮 膚)

• 皮膚屬肺經 云肺之合皮也 榮毛也 又云 肺主皮毛 在藏爲肺 在體爲皮毛是也 毛折爪枯爲手太陰絕 經云手太陰者 行氣溫於皮毛者也 氣不榮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 皮絕者 津液既去則爪枯毛折者 毛先死矣

[東醫寶鑑]

(虛勞病源)

• 損脈之爲病奈何 然一損損於皮毛 皮聚而毛落

• 虛損之疾…自上而下者 一損損於肺 皮聚毛落

(皮)

• 皮毛屬肺：內經曰肺之合皮也 其榮毛也 又云肺主皮毛 又云在藏爲肺 在體爲皮

• 邪在肺則 病皮膚痛

[醫方集解]

• 虛損一損肺 皮枯毛落…損其肺者 益其氣

[醫宗金鑑]

• 虛損成勞 困復感 陽虛外寒 損肺經 陰虛內熱 從腎損飲食勞倦自脾成 肺損皮毛 寒嗽

[奇效良方]

• 因虛而致損也 一損損於皮毛 皮聚而毛落…損其肺者 益其氣

[中國醫藥匯海]

• 自上而損者 一損損於肺 皮聚而毛落

[證治彙補]

• 感寒損陽 自上而下 一損於肺則 皮聚毛落

[華陀中藏經]

(論肺臟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

• 肺者魄之舍 生氣之源 號爲上將軍 乃五臟之華蓋 外養皮毛 內榮腸胃 與大腸爲表裏

[舍岩針法體系的研究]

(手太陰肺經)

• 肺病…皮膚痛 汗出 上下出血 鼠瘦 鼠癭 在頸支腋之間

• 肺는 皮毛를 자양하니 邪氣가 있으면 皮膚痛하고 風盛하면 癩疹 瘡疥가 된다. 肺虛하여 毛空이 성그러워지면 汗出하고 熱이 심해도 多汗한다.

[朱仁康臨床經驗集]

(瘡瘍病因病機)

• 肺主燥 肺主皮毛 肺經陰傷則 毛髮乾燥如(毛吏角化症, 毛髮紅糖疹)

• 皮毛有衛外固表作用 與衛氣有關

• 肺開竅于鼻 肺經有熱則起酒查皮, 粉刺, 雀斑等症

[東醫肺系內科學]

(肺主皮毛)

• 肺와 皮膚肌表와의 關係는 肺衛의 氣가 充盛하면 肌表가 固密하고 皮膚가 潤澤하며 身體의 抵抗力이 強하여 外邪의 侵襲을 쉽게 받지 않는다.

• 皮毛는 肺에 屬한다하여 內經에 肺之合이 皮이고 그榮은 毛가 되고 肺主皮毛한다 하였다. 또한 在藏爲肺이고 在體爲皮毛이다. 邪在肺하면 病皮膚痛한다.

[中醫病因病機學]

(肺與大腸病機)

• 肺臟生理系統由肺臟, 肺系, 肺經及相合的 皮毛 大腸等 五個部分 組成

• 皮膚屬於體表最外一層, 是防禦 外邪的屏障

• 《素問·咳論》說：“皮毛者 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從其合也” 指出了外邪侵襲多從 皮毛而犯肺的 病理特點 適也就是肺多表證的原因

(肺氣不宜)

• 外感風寒 肺合皮毛 津氣相通 風挾寒邪 外束肌表 使表衛失調 營衛運行之機受阻 而直接影響 肺氣的宣降和 津液的敷布

[中醫學基礎概論]

(燥邪犯肺)

• 燥邪犯肺 津液受傷 肺失其滋潤肅降之
机 故咳喘無痰 或痰少而粘 口鼻皮膚乾燥 舌
乾苔薄而少津

[診療要鑑]

(皮毛와 肺의 關係)

• 內經에 依하면 肺의 合은 皮요 그의
榮은(表徵이 나타나는 곳) 毛라 하였다. 病
邪가 肺에 있으면 皮膚에 發病하여 疼痛을
惹起한다고 했다.

[春鑑錄]

• 皮(肺主皮毛) 在臟爲肺 在體爲皮毛

[中醫奇證新編]

(毛髮角化案)

• <醫編>云 “皮膚索澤 由精血枯涸 清燥
潤肺可也 粗糙如鱗甲之相錯 曰甲錯” 所胃
“索澤”者 卽索而不潤澤之意

[濟衆新編]

• 皮毛屬肺

[中醫學問答]

(肺主皮毛 開竅于鼻有何 臨床意義)

• 皮毛 指一身之表 是人體最淺的 一層
組織, 包括皮膚 汗孔 毛髮等 是抵抗外邪的
屏障

• 肺主皮毛 是指肺臟 通過宣發作用 把
津液等 物質輸布于皮毛 以滋養皮毛肌肉

[醫鑑重啓]

• 皮毛는 屬肺 先受風

• 皮膚를 赤曰腠理니 津液滲泄之所를 曰
腠요 文理縫會之中을 曰理니라.

Ⅲ. 總括 및 考察

皮膚는 肺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데 文
獻의으로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內經 8)에서는 痿論에서 五臟
과 身體의 關係에서 肺는 身體의 皮毛를 主

管한다고 하였으며, 陰陽應象大論에서는 肺
가 皮毛를 生한다 하고 그 註에서는 肺의 精
氣가 皮毛를 生養한다고 하며, 宣明王氣篇에
서는 痿論에서와 같이 肺는 皮를 主한다고
하며 效論에서 皮毛는 肺의 合이기 때문에
皮毛가 邪氣를 먼저 받아 邪氣가 그 合인 肺
에 따른다고 했다. 또한 六節藏象論에서는
肺는 氣의 根本이며 그 充實함이 皮에 있다
고 하고 五藏生成論에서는 效論과 같이 皮
는 肺의 合이라고 했다. 難經 24)의 十四難
에서는 損脉이 病이 되는 것에서는 一損이
皮毛에서 損이 되어 皮聚毛落한다고 했는데
劉 7,9,11,12,16,17,19,20,21,23) 등은 모두가 難
經 24)에 따라서 外因인 寒邪에 感應되어 오
래되면 陽을 損傷하는데 上部로부터 病이 되
어 一損이 肺에서 生하며 皮聚毛落한다 하
였다. 또한 王 16)은 皮膚가 肺經에 屬하며
肺는 皮毛를 主하며 手太陰이 行氣하여 皮
毛에 溫氣를 주며 不榮하면 皮毛가 焦한다
고 했다. 吳 15)는 醫宗金鑑에서 難經 24)에
서와 비슷한 見解를 보이는데 虛損이 勞를
이루는데 다시금 外邪에 感하여 陽이 虛해지
고 外部가 차거워지며 肺經을 損傷하고 陰
虛內熱이 되며 肺가 皮毛를 損傷한다고 했
다. 또한 華陀는 中藏經의 論肺臟虛實寒熱
生死逆順脉證에서 肺는 生氣의 源이며 五臟
의 華蓋이고 밖으로 皮毛를 養한다고 했으며,
趙 6)는 舍岩針法體系의 研究의 手太陰肺經에
서 肺病에는 皮膚痛하고 肺는 皮毛를 자양
하니 邪氣가 있으면 皮膚痛이 있다고 했고,
朱 22)는 臨床經驗集의 瘡瘍病因病机에서 肺
는 燥를 主하고 또한 皮毛를 主하여 肺經의
陰이 傷하여 毛髮이 乾燥하다 하고, 皮毛에
는 衛가 있어 固表作用을 하기 때문에 衛氣
와 關係가 있다하며, 肺經에 熱이 있어 酒
查皮와 粉刺, 雀斑과 같은 皮膚疾患이 생긴
다고 했다. 李 4)는 東醫肺系內科學에서 肺

主皮毛部分에서 肺衛의 氣가 充盛하면 皮膚가 潤澤하다고 했고, 宋¹³⁾은 內經⁸⁾에서와 같이 皮毛는 肺의 合이라 하고 肺氣不宜部에서는 風寒邪에 外感되면 表部の 衛氣失調가 온다고 하여 肺와의 關係를 說明하며, 劉¹⁸⁾는 燥邪가 肺를 侵犯하여 皮膚가 乾燥해 진다고 하였고, 金^{1,2,3,6)} 등은 內經⁸⁾의 說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며, 郭¹⁰⁾은 中醫奇證新編의 毛髮角化案에서 皮膚는 清燥潤肺로서 治療한다고 하며, 楊¹⁴⁾ 역시 內經⁸⁾의 說을 이어서 肺가 皮膚를 滋養한다고 하였다.

以上을 總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肺는 皮膚를 主하며, 皮膚를 生養하고, 또한 皮毛는 肺와의 合이 된다. 둘째로 肺의 損傷은 皮毛의 損傷이 되어 皮聚而毛落이 된다. 셋째로 皮膚는 肺衛氣에 의하여 生養되어지며, 固表作用을 할 수 있다. 넷째로 肺는 燥를 主하고 皮膚를 主하여 燥邪의 犯肺가 곧바로 皮膚를 損傷한다.

따라서 皮膚는 肺와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V. 結 論

以上과 같이 皮膚와 肺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1. 肺는 皮膚를 主하며, 皮膚를 生養하고, 또한 皮毛는 肺와 合이 된다.
 2. 肺의 損이 皮膚의 損이 되어 皮聚毛落한다.
 3. 皮膚는 肺衛氣에 의해 生養되며, 固表作用을 한다.
 4. 燥邪가 犯肺하면 皮膚를 損傷한다.
- 따라서 以上과 같이 肺와 皮膚는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康明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 149, 1975.
2. 金定濟: 診療要鑑(上), 서울, 平和堂印刷株式會社, p.400, 1974.
3. 李圭峻: 醫鑑重磨, 影仁本, 卷 4, p.22, 1922.
4. 李珩九: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民瑞出版社, p.8, 1986.
5. 趙世衡: 舍岩針法體系的研究, 서울, 成輔社, p.137, 1986.
6. 李永春: 春鑑錄, 影印本, 乾 p.74.
7.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 284, 1976.
8. 洪元植: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9.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p.189, 1975.
10. 郭光, 俞涵英, 段光周主編: 中醫奇證新編,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303, 1985.
11. 方 賢: 奇効良方, 香港, 商務仁書館, p.378, 1977.
12. 徐春甫: 古今醫統, 서울, 金剛出版社, p.3169, 1982.
13. 宋鷺冰主編: 中醫病因病機學, 서울, 東南出版社, pp.165,166,168, 169, 1987.
14. 楊醫並主編: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上冊 p.14, 1985.
15. 吳 謙: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卷 40 p.342, 1983.
16. 王肯堂: 六科準繩, 上海, 鴻寶齋書局, pp.51-54, 1914.
17. 汪詡庵: 醫方集解,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p.11-12, 1983.
18. 劉燕池: 中醫學基礎概論(第三分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117,

1986.

衛生出版社, p.7, 1979.

19.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p. 81, 1976.

23. 蔡陵仙：中國醫學匯海, 서울, 成輔社, p.938, 1978.

20. 李用粹：證治彙補, 香港, 萬葉出版社, pp.126-127, 1975.

24. 偏 鵠：難經, 臺北, 大方出版社, pp. 21-22, 1982.

21. 李 梴：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 355, 1977.

25. 華 陀：華陀中藏經, 香港, 自由出版社, p.21.

22. 朱仁康：朱仁康臨床經驗集, 北京, 人民

ABSTRACT

The investigation of literature about relation of lung and skin.

Lee Han Gu, Jung Sung Gi Lee Hyung Ko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e skin is related the lung as follows ;

1. The lung control skin and give a nutrition to skin.
The skin and hair “hab” (合) the lung.
2. As a damage of lung is a damage of skin, skin and hair “chi-lag” (聚落)
3. A defensive energy of lung give a nutrition to skin, and strengthen the body surface.
4. Dryness damage the lung, and so damage the skin.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we know the body surface are closely related to the lung functionally.